

유기면(Organic Cotton)

가장 평화적인 산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섬유산업, 그 중에서도 면화와 연관된 면방 관련 산업이야 말로 평화산업의 주체 같았으나 세월의 변천에 따라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일환으로 유기농 제품인 유기면이 각광을 받는 세태가 되어 "지구에 친화적이고, 피부에 부드러운 제품"이란 캐치프레이즈마저 나오게 되었다.

이 유기 농법은 면화 재배 중에 화학비료, 해충 구제제, 제초제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특히 고엽제의 살포는 한층 더 금기시하는 사항이다.

일반 면화 농장은 수확 직전에 사용되는 고엽제의 영향으로 주변 나무들에서 녹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고엽제의 영향은 면화 농장 주변의 주민의 건강 장애, 특히 어린이들의 호흡기 장애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기 농업 면화 재배를 개발한 사람이 그린 환경 회사의 “조지 에이커” 씨와 유색 면을 개발한 “살리 폭스” 여사다.

유기면은 몇 군데의 인증기관이 있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면화의 수확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지만 약 5 천톤 정도로 전 미국 면화 생산량의 1%도 안된다. 그러나 그 수요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유기면은 제품 가공 단계에서도 화학 약제 대신에 밀가루나 식물유, 밀납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로 씻어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기 농업 면화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따르게 마련

이어서 원면 값도 일반 면화 값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기면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알레르기 성향이 문제가 되는 유아용의 내의 등 베이비 웨어 분야가 많으며, 일반인 용도로는 침구나 침장 용, 타월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부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 제품 범위는 여성용, 남성용 및 베이비 웨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래 이 유기면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었으나, 일본의 페리시모라는 회사가 "Peace by Peace Cotton" 이란 프로젝트를 세워 인도의 유기면 생산 농가를 계몽하고 생산 방식을 지도하면서 값싼 인도산 유기면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부는 다시 인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순환 프로젝트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면장갑을 위주로 데님이나 기타 면제품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유기면 제품은 아니지만 일반 면화를 방적, 제직, 염색 및 가공 공정에서 화학 약품을 최대한 억제한 제품을 “그린 코튼” 이란 이름으로 내놓고 있기도 한다.

♣(공석봉)